

■ 『건강진단과 사후관리』전문교육 실시

고용보험법 제22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16조—교육비 일부: 교육비의 50% 이내의 환불을 받을 수 있음—에 의거한 한 당 협회의 『건강진단과 사후관리』전문교육 과정이 지난 4월 20~22일 3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금번 교육과정은 20여명이 수강하였으며 주요강의 내용은 미래의 산업보건 전망 및 특수검진과 보건관리자의 역할 등이었다.

▶ 알립니다.

★ 대한산업의학회는 지난 4월 21일 가

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산업의학 전문의가 수행하여야 할 다양한 역할'을 주제로 한 제24차 춘계학술대회를 하였다.

★ 한국산업위생학회는 창립 1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를 오는 5월 12(금)~13(토)일 양일간 경주 하일라 콘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첫날인 12일은 '작업환경 관리제도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4연제 및 종합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튿날인 13일은 산업위생관리 사례가 발표된다.

★ 당 협회 이사 및 강원지부장을 역임하셨던 이윤재 동남보건연구원 회장께서 지난 4월 12일 숙환으로 별세하셨다.



韓·日·中 산업보건 학술집담회 협의회 보고

1983년부터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교대로 개최되어 오던 한일산업보건학술집담회가 중국의 공동참여 제의에 따라 오는 2001년부터 한, 일, 중 산업보건학술집담회로 새 면모를 갖추어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지난 4월 22일 일본 산업의과대학 산업의 실무연수센터에서 3국의 대표자들이 회합을 갖고 향후 동 학술집담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였다. 협의 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 시 : 2000년 4월 22일

▶ 장 소 : 일본 산업의과대학 산업의 실무연수센터

▶ 참석자 : 일본 大久保利晃(대표, 산업의대 부학장)

東敏昭(간사, 산업의대교수)

乾修然(전 간사, 경도공장보건회 명예소장)

馬場快彦(산업의대 명예교수)

중국 劉世傑(대표, 북경의과대학 공공위생학원 명예원장)

王 生(간사, 북경의과대학 노동위생교연실 주임)

蘇 志(중국, 위생부, 법제감독사 공공위생감독관리처장)

齊昌晶(부경시 노동위생직업병방치연구소 주임)

黃漢林(광동성직업병방치원 부원장)

한국 李昇漢(대표,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李世薰(간사, 가톨릭의대 예방의학 교수)

曹圭常(전 대표, 대한산업보건협회 명예회장)

崔炳秀(대한산업보건협회 부회장)

鄭文姬(한양의과대학 교수)

▶ 토의내용 :

1. 학술집담회 명칭은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韓, 日, 中 산업보건학술집담회로 칭한다.

2. 학술집담회 사무국은 다음 장소로 정한다.

· 일본 : 北九州市 八幡西區 醫ヶ丘 1-1

産業醫科大學 産業生態科學研究所

· 중국 : 北京市 學院路 10083

北京大學醫學部 勞動衛生教研室

· 한국 : 서울市 瑞草區 瑞草3洞 1490-32

大韓産業保健協會

3. 임원에 있어 부대표 및 감사는 두지 않기로 하며 운영임원과 상임임원은 7월말까지 결정하여 각국 사무국에 통보하기로 한다.
4. 학회 참가비는 원안대로 US\$100으로 한다(과거 일본과 한국에서의 학회비용은 찬조금으로 보충하여 왔는데 중국에서는 전시회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
5. 중국에서 개최될 2001년도 학술집담회는 다음과 같이 계획한다.
 - (1) 개최지 : 중국 북경대학
 - (2) 개최일자 : 2001년 5월 17(목)~19(토)
 - 17일(목) : 오후 특정제목으로 workshop
 - 18일(금) : 오전 특별강연 오후 분과학회
 - 19일(토) : 오전 특정과제로 세미나 토론
오후 시찰과 관광(자세한 것은 차후 사무국에서 발표예정이며 중국으로서는 "New occupational health hazards and risks due to fast industrialization and social-change under the globalization of economy"를 주제로 개발도상국의 과제와 한국과 일본의 경험을 듣기를 희망함.)
6. 중국에 있어 廣東省은 외자도입에 따라 공업화 과정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건강장애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금년 10월중에 일본과 한국전문가들이 시찰 방문을 희망함.
7. 한일중 학술집담회와는 별도로 각 기관과 연구자들간에 공동연구과제나 학술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